

(자서전 요약)

손주에게 들려주는 할아버지의 이야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아버지가 마흔다섯이 되시고 어머니가 마흔이 되시던 1959년(기해년) 음력 6월 8일에 내가 태어났다.

산골이라 논은 볼 수가 없고 모두가 개간한 언덕배기 밭이고 작물은 보리와 밀 옥수수과 감자, 담배 농사와 삼 농사 한지의 재료인 딱나무로 소득을 보태는 찹찹산중의 산골 마을에서 자라다가 왕복 3리 정도되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

6학년 겨울이 되었다. 어머니께서 이웃집에 마을을 가셨는데 하루를 주무시고 오더니 팔 한쪽이 마비되었다고 한다. 차가운 방에 주무시느라 중풍이라는 병으로 혈이 막혀 생긴 것이라고 한다. 그때만 해도 병원이 흔하지 않던 때라 변변한 약도 써보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여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여 공고에 진학을 하고 고등학교 2학년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고교 졸업때, 대구 시내에 있는 『OO기술공단』이라는 회사에서 실습생을 모집한다는 것을 듣고 대학을가기 위하여 취업전 실습을 나갔다. 그 덕분에 야간전문대를 다니고 졸업후 입대하였다. 훈련소에서 술을먹고 점호를 취하다가 걸려 공수부대에 차출되어 1공수를 제대하였다.

1983년 전역 후 하나님께서 나의 잃어버린 갈빗대를 찾아주셔서 교제를 하다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취업을 나갔다가 귀국후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였다.

결혼 후, 한 달이 지나 아내의 병환으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였고, 장인어른의 권유로 공무원을 시작하여 포항에서 첫 발령을 받고 1년후 서울시공무원 공채로 서울 생활을 시작하였다.

(~~~~ 중 략 ~~~~)

포항에서 공무원 시절 큰아들을 주셨고 서울에서 작은아들을 주셔서 근무하는 가운데 가난한 공무원을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 일을 만져도 결국 정년이라는 시간까지 오게 되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공무원 봉급으로 서울의 집을 가진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어렵기는 매 한가지이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집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아내에게 사업이라는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가난도 면하게 되니 또 다시 세상에서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하나님이 부르심에 다시 교회로 돌아와 그 회개의 중심에 서게 된 성경암송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여 여기까지 왔다.

큰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기적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하도록 역사하셨으며, 작은아들은 사수에 걸친 대학교 시험으로 현재는 교사의 길을 가고 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이어서 결혼을 하고 이제 순서에 따라 큰며느리에게 태의 열매를 주셔서 내년 2월에 우리에게 선물로 오실 예정이다.

“따봄!” 이라는 태명으로.....

“끝”